

■ 민주당-전남도 갈등 '영산강 사업' 오늘 광주시청서 간담회

보 설치·준설 '이견' 수질개선 '한목소리'

민주당 "상류보다 하구둑 퇴적 오니 준설을" 전남도 "승촌·죽산보 홍수 방지 위해 필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박준영 전남지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이 8일 박 지사와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광주시청에서 간담회를 하기로 해 민주당과 전남도가 영산강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점'을 찾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전남도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핵심 사업은 보(湫) 건설과 준설, 저수지둑 높이기, 수질개선 등 4개 사업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영산강 유역 중 나주 영산포 위쪽인 중·상류가 건천이어서 상류 쪽에 대한 준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저수지둑 높이기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한발 물러서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광주호 등 14개 저수지 증고에 대해 환경적 영향과 농업용수의 이용 변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저수지 증고

는 필요에 따라 숫자를 줄여도 된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대안 모색과 참가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민주당과 전남도의 입장차이가 좁혀질지 주목된다.

◇수질 개선에는 '한목소리' = 민주당은 영산강사업과 관련해 보와 준설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수질개선사업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4대 강 지지 특별위원회 영산강팀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걸리고 있는 수질개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보와 준설작업, 저수지 증고사업은 즉각 중단한 뒤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 대신 광주시와 전남도

에 수질 개선사업비 3조6293억 원을 증액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계관리기금이 영산강 수질 개선사업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영산강 삼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도 수질개선 예산 증액에는 동의하고 있다. 영산강 하류지역의 경우 수질악화가 계속돼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축산폐수처리·마을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4대 강 지지 특위는 8일 영산강 승촌보와 광주천·광주댐 현장조사에 이어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4대강 사업 지지특별위원회가 8일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할 영산강 살리기 사업 내 승촌보 공사 현장. 가물막이를 철거한 뒤 보 설치 작업이 진행중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남구 전략공천 說...說...說...

특정인 공천 소문 나돌고 '낙하산' 반대 시위 지역 정치권선 "예산 전문가 필요" 주장도

민주당의 광주 남구 7·28 재보선 공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당 기여도'와 '당 필요성', '당선 가능성' 등이 후보 선정 기준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6일 밤 늦게까지 계속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당에 기여해온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당 입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중요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또 낙하산 공천을 할 경우 낙선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선 가능성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최고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한 인물이 남구에서 인지도가 낮은 경우 공천에서 탈락할 인지도 높은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설 경우가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인물에 대한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일부 후보 측에서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며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공천 날짜가 임박해오면서 특정 인사가 '전략공천'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일부 후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윤정 남구지역위원장 지지자 100여 명은 7일 서울 민주당 중앙당을 방문하고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전략공천이란 명목 아래 남구와 무관한 인물을 공천 대상에 올려놓고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무원칙과 기준 없는 공천논의는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공천 후보로는 이원일장과 정동채 전 장관, 지방문 전 의원, 임내현 전 광주지검 고검장, 장병완 전 장관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세균 대표와 장 전 장관이 만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7일 기자회견

에서 "정세균 대표와 장병완 전 장관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부 광주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재 광주지역 국회의원 중 행정전문가(이용성·조영택)와 교육전문가(김영진) 등이 포진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예산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당내 한 유력 인사는 남구 보궐선거에 나선 모 후보에게 "인지도가 높은 만큼 당 지도부가 남구와 무관하거나 인지도가 없는 인물을 전략공천을 할 경우 무소속 출마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남구 7·28 재보선 공천이 '오리무중'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한 관계자는 "남마다 자고 일어나면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유력 후보가 바뀌는 등 갖가지 설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후유증이 뒤따르더라도 후보 최종 인준 권한이 있는 당무위원회가 9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박지경·최권일기자 cki@

민주 시당위장 경선 강기정 VS 김재균

주류-비주류 대리전 가능성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 강기정(북갑) 의원과 김재균(북읍) 의원이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두 사람 간의 경선이 이뤄질 경우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당내 주류(강기정)와 비주류(김재균) 간의 대리전 양상도 짙어 보여 주목된다.

김재균 의원은 7일 "6·2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광주시민은 민주당의 통렬한 반성과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사실상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당의 골격인 시당위원장은 당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인물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화합형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광주시당의 화합을 위해 지역국회의원과 원로당원,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당위원장 출마를 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은 "시당위원장 경선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광주시당을 맡아서 좋은 방향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다"며 시당위원장 경선에 출마할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은 민간인 사찰 의혹, 4대강 사업 지지 등 MB 정권의 실정에 맞서 싸우는데 전력하겠다"며 "7·28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시당위원장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은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인 내달 초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노당 오병윤 후보 남구 보선 출마 선언



민주당 오병윤 예비후보가 7일 "광주에서 진보적 정권교체의 주춧돌을 놓겠다"며 7·28 광주 남구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28 보궐선거는 아직도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더 준엄하게 심판하는 '정권 최후 심판'의 장이 될 것이고, (저에게) '정권 최후 심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권은 헌정 사상 최초로 공당의 사무총장인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며 야권연대를 무산시키려 했다"며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받들어 더 큰 연대정치, 더 강한 진보정치의 주춧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폭 넓히는 孫...丁·鄭 바짝 긴장

〈학규〉 〈세균〉 〈동영〉

박주선·천정배 잇단 회동

전당대회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비주류 당권주자를 잇따라 접촉하며 보폭을 넓혀가자 정세균 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4일 박주선 최고위원을 서울에서 만난 데 이어 6일에는 춘천으로 찾아온 천정배 의원과 3

시간만 가량 회동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과 천 의원은 비주류연합체인 쇄신연대 소속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천 의원이 이 자리에서 "2012년 집권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쇄신하고 변화해야 하며, 이번 전대가 대선 전에 쇄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손 전 대표도 큰 틀에서 공감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손 전 대표가 비주류 측인사를 만나면서 정 대표 측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손 전 대표가 정 대표와 느슨하지만 연대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이번 전대에서 비주류 그룹과 연대할 경우 전대 선거판 자체가 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손 전 대표의 행보는 민주

당 주류와 비주류 모두 국민을 바라보기 보다는 당권 투쟁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당 여론도 손 전 대표에 우호적이다. 지난 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인텔리서치'가 지난 3일 하루 동안 민주당 대의원 32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당 대표 지지도에서 손 전 대표가 25.3%를 기록, 23.5%를 얻은 정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동영 의원 19.7%, 박주선 의원 10.7%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